



# DIASPORA ARIRANG

Sponsored by Korean American Muse, DaRoo, Shatto Gallery, LA Artcore



---

## Contents

모시는 말씀	2
우리의 꿈	3
박경재 Los Angeles 총영사 축하의 말씀	5
John B. Duncan UCLA 명예교수 축하의 말씀	7
Sue Park Shatto Gallery 관장 축하의 말씀	9
Pranay Reddy LA Artcore Director 축하의 말씀	10
이제인 KAM 회장 축하의 말씀	11
 DIASPORA ARIRANG 1	 13
Heimyung C Hyun	14
Jiseon Lee Isbara	15
Jin Sil Kim	16
Scarlett Kim	17
So Moon Kim	18
Sung il Kim	19
Myung gyu Lee	20
Robert Lee	21
Sam Sanghoon Lee	22
Ji Oh	23
Da Aie Park	24
Hyesook Park	25
Michelle Seo	26
Kayla Tange	27
Hannah Kim Vatamli	28
 DIASPORA ARIRANG 2	 29
Sheriann Ki Sun Burnham	30
Yun J Choi	31
Koojah Kim	32
Sunny H Kim	33
Won Sil Kim	34
Young Ku Park	35
Caroline Yoo	36
 Advertisements	 37



## 작품을 완성시키는 관객

저희 그림 잔치에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부디 오셔서 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술작품은 관객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느낌과 말씀은 중요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전시회가 시작되면 관객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설치미술이나 미디어아트, 공공미술도 비교적 많아졌지만, 미술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혼자서 하다 보니 외로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아도취나 독선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소홀하고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확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이므로, 관객 여러분의 의견이 한층 더 소중합니다.

부디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고 공감하시며,

단순한 구경꾼이나 축하객에 머물지 말고

작품의 완성에 동참하는 동반자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꿈

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Korean-American Artists**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공유합니다.

개성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의 문화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가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인종 갈등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작품의 정신적 바탕은 이민자인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아 정체성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리랑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예술은 다양성과 개성이라는 물을 먹고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다양성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로운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 민요로 우리 모두 함께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노래합니다. 아리랑은 한국문화 유전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태어나고, 새롭게 해석되며 살아 숨 쉬고 있지요. BTS가 부른 아리랑처럼!

이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저마다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 전시회에는 70대부터 20대, 이민 1세와 1.5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작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시각과 개성적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기회를 통해 세대 간의 공감대가 한층 넓어지기를 꿈꿉니다.

황량한 디아스포라의 벌판에서 묻는다.

나는 정말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가?

아리랑이 바람처럼 대답하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저 아롱다롱

무수한 색깔들이 한데 어우러져 저마다 노래 부르며

오순도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디아스포라 아리랑> 전시회  
참가작가 일동

The Korean American artists participating in Diaspora-Arirang share one dream: to establish our own identity and sing our own song. Our hope is that each unique and beautiful piece will contribute to the rich and diverse culture of America. Our belief is that our art will increase understanding to help raise the voices of our community.

The spiritual basis of our work is our identity as part of an immigrant diaspora with a unifying baseline of “Arirang.” Diaspora-Arirang draws from both the drops of individuality and from a larger body of diversity. We believe that the gathered idiosyncrasies, altogether will create a harmonious new meaning and give a partial glimps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Los Angeles.

“Arirang” is the most well-known folk song in Korea. It talks about the wisdom of living in peace and harmony with one’s environment. The existence of “Arirang” is ever-changing. It is a constant living and breathing entity; reborn and interpreted fluidly and widely, with even mainstream Korean Pop music groups like BTS performing it.

In this exhibition, 22 Korean artists based in Southern California will express their unique perspectives on what “Arirang” means to them. Providing a wide breadth of interpretations, this exhibition will feature works from multiple generations and age groups—from first and 1.5 generation immigrants to American born second generation artists, all in the age range of 20 to 70 years old. Through this opportunity, we dream of further broadening the consensus among generations.

Our questions across the Diaspora. Who are we really? Which is the right way for us to live?  
What is the world we dream of?

“Arirang” answers like the whispering wind. The world we dream of is numerous colors blending together each singing a song. It is a world where we live together.

Artists from  
Diaspora Arirang exhibition

## 축하의 말씀



박경재 주 나성 한국총영사  
Kyung-Jae Park , Consul General in Los Angeles  
Ph.D. in Education

디아스포라 아리랑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70대부터 20대, 이민 1세, 1.5세 및 2세 미주한인미술가 22명의 신바람, 신명, 흥,한,여유, 풍류등 다양한 한국적 정서를, “자신만의 개성적인 조형언어로, 22개의 아리랑으로 표현한 멋진 전시회가 될 것입니다.

이민사회의 독특한 정서인 ”디아스포라”와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예술적으로 결합하여 한국적 정서와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이민자의 삶과 정신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더믹과 아시안 혐오범죄에 시달리는 미주한인사회에 많은 위안을 주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시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판소리와 사물놀이 민속공연은 한국 전통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미국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아리랑 전시회를 후원해 주신 샤토갤러리, LA 아트코어, 한미뮤즈, 다루국악공연단, 유희자 국악무용연구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폭넓은 시각과 개성적인 예술감각으로 한국적 정서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다양한 작품을 많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Congratulatory Messag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Diaspora Arirang Exhibition!

In this exhibition, 22 Korean American artists aged in their 20s to 70s and ranging from the 1st, 1.5th, to 2nd generations explore various Korean concepts such as Shinbaram, Shinmyeong, Heung, Han, Relaxation, and Pungryu in search of their own “Arirang.” Diaspora Arirang will explore 22 unique “Arirangs”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artist.

By combining “Diaspora,” a concept unique to immigrant communities, and “Arirang,” our nation’s folk song, each artist discovers their own way to express Korean emotion and beauty. In doing so, the artists establish their own senses of identity, which is integral to their lives as diaspora.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provide a sense of community and comfort to Korean Americans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ise of Asian hate crimes. During the exhibition, performances such as pansori and samulnori will provide a culturally enriching experience to everyone involved by publicizing the originality and excellence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st gratitude to Shatto Gallery, LA ArtCore, Hanmi Muse, Daru Korean Traditional Music Troupe, and Yuhuija Traditional Music and Dance Research Institute for sponsoring the Diaspora Arirang exhibition. Please enjoy the artwork and the performances.

Thank you.



## 축하의 말씀



John B. Duncan  
UCLA 동양언어문화학과 명예교수

디아스포라 아리랑 전시회 개최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무려 22명이나 되는, 이민1세, 1.5세, 그리고 2세를 포함하는, 남가주 한인 미술가들이 참여하는 규모만 해도 관심을 끌만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랑으로 상징되는 전시회의 주제도 매우 뜻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떠날 때 가지고 온 자아상 내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국 땅인 이곳의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고 앞으로 건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와서 한류, K-pop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면서 미국거주 백남준, 아니카 이와 같은 한국출신의 탁월한 미술가들도 역시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예술성과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고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된 지구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근대 시기로 올라가면 한국인의 선조들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 찬란한 문화적, 예술적 업적을 이룩한 것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가야와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 건너가 제철, 토기, 조각 등 각분야의 기술 발달에 크게 이바지했고 불교도 전달하면서 고대 일본의 문명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원축과 무상과 같은 신라의 승려들이 당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원효대사의 금강삼매경론을 전달하여 중국에서의 선종 형성과 발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고려 후반기에 많은 고려인들이 강제 이동했든지 자진 이동했든지 원나라에 들어가 대도 중심 중국 도시생활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조 중엽에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으로 끌려간 선비들은 일본에서의 유학 발달에 한 몫을 했고 조선인 공장(工匠)들은 도자기의 기술을 일본에 소개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인 하기와끼(萩焼, Hagi ware)와 라쿠야끼(楽焼, Raku ware)의 탄생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선례로 봐서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한 한국인 예술가들도 자신이 이어받은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전세계의 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동시에 이번 전시회 주제의 뜻을 받들고 다문화적 다민족적 사회속에서 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유지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



## Congratulatory Message

### Message of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Diaspora Arirang Art Exhibition

I look forward with anticipation to the opening of the Diaspora Korea Art Exhibition. This exhibition is noteworthy for its size and makeup, with no fewer than 22 Korean-American artists drawn from the 1.0, 1.5, and 2.0 generations.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symbolism of its theme of Arirang, a centuries old folk song that is seen as expressing the identities and aspirations of the people of Korea. This event is designed in a way to enable both participants and viewers to reaffirm the cultural heritage that Korean immigrants bring with them when they leave Korea, to show how they reconstruct their senses of self to fit with the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y find in their new home, and to point to way toward maintaining a healthy sense of self in the future.

Korean popular culture, as seen in the Korean Wave and K-pop,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throughout the world in recent years, and such outstanding Korean-American artists as Nam June Paik and Anicka Yi have received world-wide acclaim. This can be seen as evidence of the artistry and hard work of individual Koreans, but it is also a reflection of how the rapid process of globalization of the past few decades has opened doors for artists from newly developing countries. True though that may be, it is also important for us to realize that throughout history the ancestors of today's Koreans have migrated to different countries have left behind many examples of superb cultural and artistic achievements in their new homes.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n history, many migrants from Kaya and Paekche went to Japan where they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formation of ancient Japanese civilization by introducing Buddhism and by making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early development of iron-making, pottery, and sculpture. Buddhist monks from the Korean kingdom of Silla, such as Wonch'uk and Musang, settled in Tang China where they introduced Wonhyo's Exposition of the Vajrasamadhi-Sutra (Kumgang sammaegyong non) and were major players i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editational (Chan/Son/Zen) Buddhism. In the late Koryo period, large numbers of Koreans relocated, some by force and some voluntarily, to the Yuan empire where they exerted great influence on Chinese urban culture. Also, at the time of the Imjin War of the late sixteenth century, many Koreans were taken to Japan as prisoners, including scholars who contributed to the rise Tokugawa period of Confucian thought and artisans who played the central role in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such representative Japanese ceramics as Hagi ware and Raku ware.

Such historical precedents suggest that the Korean artists who have now come to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build on their distinct cultural heritage and particular historical experience to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ar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hile also upholding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to confirm and maintain their senses of self in the multi-cultural, multi-ethnic society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I offer my wholehearted congratulations to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is important exhibition.

John B. Duncan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UCLA

## 축하의 말씀



Sue Park  
Shatto Gallery 관장

<아리랑-디아스포라>의 종합적 문화잔치를 여시게 되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정서와 이민사회의 독특한 정서인 '디아스포라'가 어우러져, 이민1세와 1.5세, 그리고 2세 예술인들이 서로 교감하고 조화를 이루어 한자리에서 한목소리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입니다.

요즈음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게다가 인종차별, 동양인 차별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술을 통해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타인종들과 적극 교감하며 한국적 정서와 아름다움을 알린다는 취지의 문화 잔치에 샬로갤러리가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디아스포라 아리랑 기획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이란 땅에 디아스포라가 된 미주한인미술가들이 '한국적 아름다움'을 각자의 개성과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표현하여 부르는 22개의 아리랑에 기대가 큼니다. 부디 이행사가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적 아름다움을 전하고 이곳에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우리의 뿌리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that celebrates "Arirang+Diaspora"! This multi-generational exhibition of Korean-American artists exploring the folk song "Arirang" will give a chance for them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to come together as a community. I am beyond excited for the completion of Diaspora-Arirang.

America's normalcy is stifl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a surge of xenophobia and racism, especially towards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That is why this exhibition, which seeks to create a space to share Korean American sentiments and culture with other ethnic groups, is much needed. Shatto Gallery is honored and strongly supports the upcoming exhibition Diaspora-Arirang, with hopes that we too will become a platform to raise awareness of minority voices within our community.

I look forward to the many versions of "Arirang" produced by the 22 artists. It will be an exhibition that will introduce many outsiders to the aesthetics and beauty of the Korean culture, and evoke nostalgia for those within the Korean community.

---



## Congratulatory Message

Pranay Reddy  
Director  
LA Artcore



To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Korean Diaspora Exhibition,

It is with gratitude that I acknowledge the pluralistic role that Korean culture plays in the culture of Los Angeles. I am thrilled to help bring visibility to the voices of the artists participating, whose circumstances as diasporic artists bestow a particular texture to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around us, and each other. Many before us, who have gone beyond their native borders through varied circumstances have faced unique challenges whose struggles are also defined between generations. The artists of the Korean Diaspora Exhibition articulate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diasporic experiences while continuing to redefine how identity may be remapped and renewed. This overall inquiry continues to richly inform what it means to be both Korean and America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exhibit's organizing committee, its sponsors; Korean Consul General and professor Dr. John Duncan, gallery Shatto gallery director, and its artists for whom it is a pleasure to present in an exhibition at LA Artcore this September.

It is with much excitement to engage in this ongoing inquiry.

With much gratitude,

## 축하의 말씀



회장 이제인  
KAM (Korean American Muse)

우선, 이곳 미주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재미 예술가님들께서 이번에 특별히 디아스포라 아리랑을 주제로 각 개인의 예술성을 한국적 정서와 함께 정체성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전시회를 기획하셨다니 대단히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며 그동안의 준비 과정으로 교육하시고 전시할 일정을 맡아 민속공연까지 포함시켜 한국종합예술 행사로 진행하시는 재미 예술가님들의 수고하심과 애쓰심에 한국문화와 예술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여성문화그룹 KAM (Korean American Muse)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모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느낀것은 음악(국악), 미술(민화), 음식, 한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알고보니 우리문화가 기가막히게도 과학적으로 월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급부상하는 한국 문화가 어쩔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단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소수 민족으로서 온갖 부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빼앗겼다고 할까요? 그러나 이젠 다행이도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찾아 나 자신을 새로이 만날 때가 온거지요.

그런의미에서 저희 KAM은 여러분들을 적극 후원하는 바 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다민족, 다문화에 살고있는 이곳 남가주에서 한국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문화예술을 더욱 빛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개인 정체성의 아리랑, 또는 나성 아리랑으로 빛나는 예술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



## Congratulatory Message

Firstly, the Korean American Muse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22 artists on their hard work in the Diaspora Arirang exhibition. Each artist poured their soul into their work, exploring their own conceptions of Korean concepts and sentiments and including their unique emotions into each piece. As the president of KAM, one of this show's sponsors, I feel incredibly grateful to have witnessed this beautiful melding of art and culture, from the artwork to the performances that will be held during the exhibition.

Korean culture is incredibly unique, and it has been enjoying its time in the spotlight for the past few years. The beauty of our culture comes from our resilience—though we lost our identity while our nation was occupied, we eventually broke free and rediscovered our culture, and we still continue to do so.

We at KAM are overjoyed to sponsor this show and share our rich culture, and we ask you to discover what California Arirang means to you.

Thank you.



# DIASPORA-ARIRANG 1

A TWO PART EXHIBITION

AUGUST 7 - SEPTEMBER 4, 2021

Opening Reception: Saturday, August 7th, 12 pm - 5 pm

Arirang Pansori Performance by Yunwoon Seo 2 pm, 3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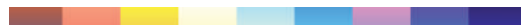
## Featured Artists

Hei Myung C. Hyun  
Scarlett Kim  
Myung Gyu Lee  
Ji Oh  
Michelle 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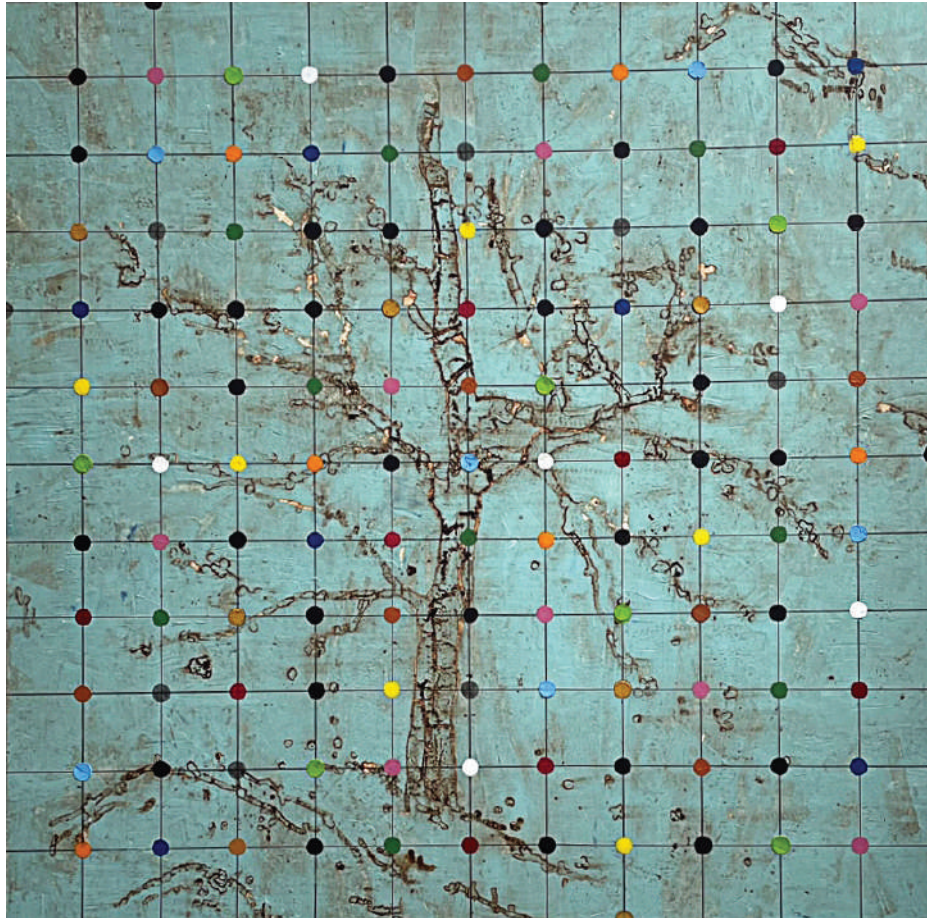
Jiseon Lee Isbara  
So Moon Kim  
Robert Lee  
Da Aie Park  
Kayla Tange

Jin Sil Kim  
Sung Il Kim  
Sam Sanghoon Lee  
Hyesook Park  
Hannah Kim Varamini

Curated by Ji Oh and Da Aie Park  
Advised by So Hyun Chang (Art Critic)



## Hei Myung C. Hyun



Blossom 2101, 2021  
Mixed media  
36 x 36 inches

---

“Bridging and integrating the gap between two such vastly different cultures has challenged and enriched me as an artist.”

---

Hei Myung C. Hyun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6. Hyun received her B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65 and her MFA from University of Hartford in 1971. Hyun has held over 30 solo shows and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 the United States,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 her most recent solo exhibition in New York City in May 2021.

[www.heimyunghyun.com](http://www.heimyunghyun.com)

---

Jiseon Lee Isbara



Top Ten Books to Read Before You Die, 2014  
Stitched and dyed; fabric, thread, books  
and wooden tables

---

Jiseon Lee Isbara addresses the complexity of current cultural discourse through the lens of her experience as a first-generation immigrant woman of color. Using her work, she questions the congruity around her emotions about socio-economic and cultural topics affecting our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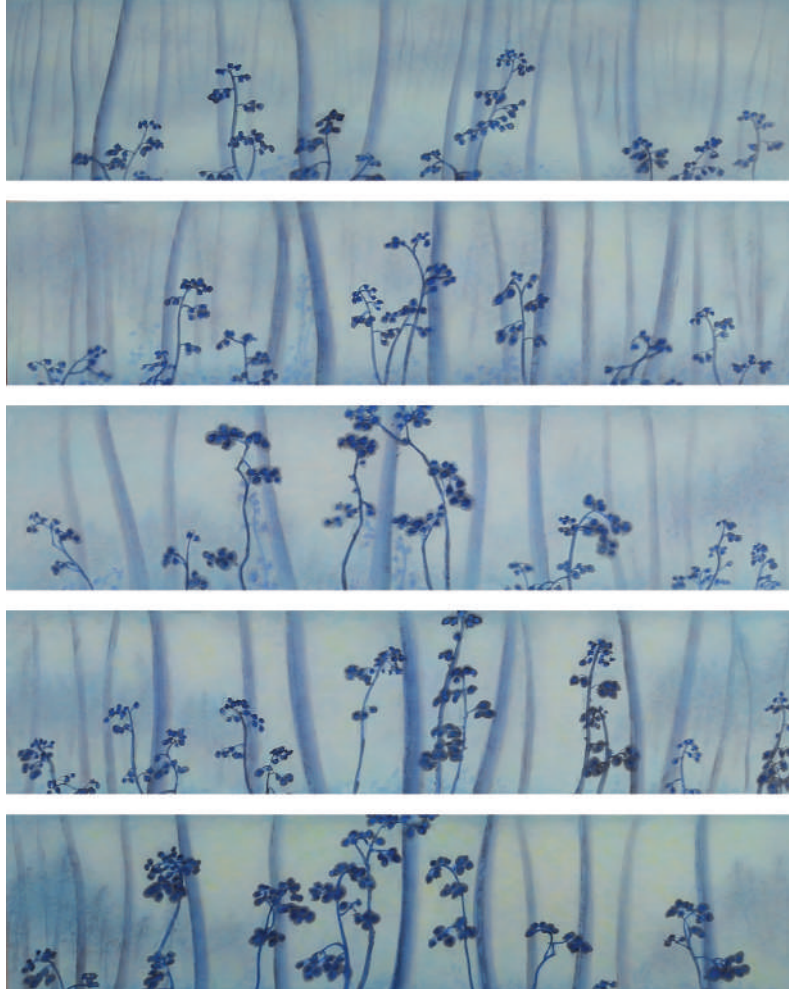
---

Jiseon Lee Isbara is an artist and educator who serves as Provost at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Los Angeles. She exhibits nationally and engages with viewers through lecture and discussions; collaborating and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by serving in various roles for regional and national art and education organizations. Her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Label Me Label You, Hold That Thought and Top Ten Books to Read Before You Die in Portland, Oregon. She showed at many group invitational exhibitions around the country as well. Jiseon earned her MFA in Fibers from Colorado State University and MFA and BFA in Fiber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www.Jiseonleeisbara.com](http://www.Jiseonleeisbara.com)





## Jin Sil Kim



M1, 2021

Ink and color on rice paper  
64 x 51 inches

---

“Thinking about my memories of Korea and my life here, I wanted to harmonize the beauty of the East and the West by becoming one with nature. Painting is my great happines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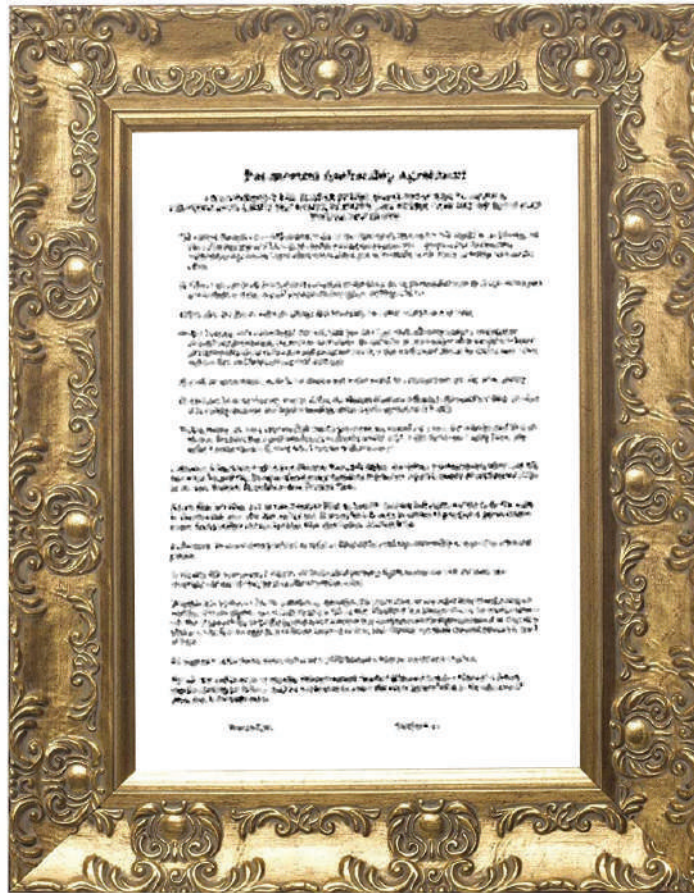
Jin Sil Kim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Hong Ik University in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include Seoul, Los Angeles, New York, and Washington D.C. Group exhibi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Kim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Seoul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Association and Southern California Artists Association.

<https://www.jinsilkim.com>



---

## Scarlett Kim



Postmortem Authorship Agreement, 2021  
Framed print  
18 x 15 inches

---

The only way to define the Korean diaspora is through the act of promise. Postmortem Authorship Agreement is an artifact of a promise made between two artists of the Korean diaspora. Part love letter and part conceptual performance, this promise is presented in the form of a framed print of the legally-binding, signed contract artists Scarlett Kim has entered into with a fellow artist, in which the two artists commit to “making a performance about the other person’s life in the case one of them dies before the other.”

---

Scarlett Kim is a Korean theatre director, artist and producer who moved to the US in 2008. Scarlett works at the intersection of art, technology and community globally; the two pillars of her multi-disciplinary practice are participatory performance and mixed-reality technology. She received her MFA in Theatre Directing a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and BA in Visual Arts and Theater & Performanc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www.scarlettjkim.com](http://www.scarlettjkim.com)

---

So Moon Kim



Motherhood, 2019  
Mixed Media  
59 x 49.5 Inches

---

“By mixing India ink with acrylic paint I was able to express my iteration of Motherhood.”

---

So Moon Kim received his BFA from Kyunghee University School of Art in Seoul, Korea. He has had 31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since 1978.



## Sung il Kim



Sot Dae, 2021  
Iron, Welding  
36 x 36 inches

---

“By welding metal into the towering “Sot Dae” imagery, I was trying to express the mountains of my hometown.”

---

Sung Il Kim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6. Kim graduated from the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where he received his BFA and MFA. He has had 7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nd competitions. Kim is currently running the Love Art Studio in San Bernardino, CA.





## Myung gyu Lee



From then and still, 2021  
Fired clay  
8 x 10 x 22 inch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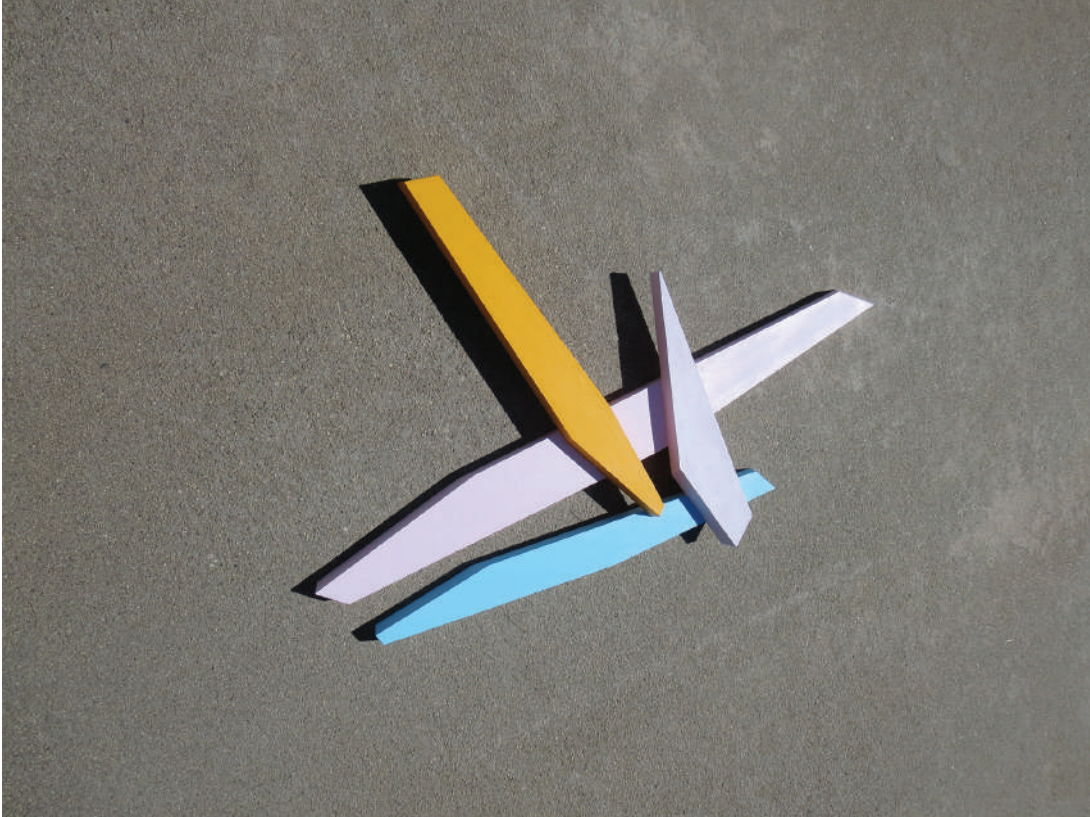
“Through a group of clay statues, I wanted to convey my initial impression of “longing” from the theme of Diaspora.”

---

Myung Gyu Lee studied Fine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79. She received her MFA from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and Parsons School of Design, and has been working in ceramics and sculptures. She has shown her works through numerous group shows and two-person shows in the past.



## Robert Lee



Re- Created Painting in Space, 2021  
Oil on wood  
32.5 x 23 x 1.75 inches

---

The theme of my paintings are based on this passage: "For behold, I create new heavens and a new earth; And the former shall not be remembered or come to mind" - Isaiah 65:17

---

Robert Lee immigrated to the U.S. in 1974. Le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with a BFA in Visual Arts in 1995, and an MFA fro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in 2012. Lee has exhibited in Los Angeles, New York, Paris, and South Korea and currently works as an independent artist.



---

Sam Sanghoo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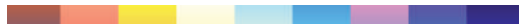
Ilwolobong in California, 2021  
Acrylic & Oil paint on Canvas  
60 x 48 inches

---

“I have a strong and distinct artist identity derived from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My recent work includes the combining of Korean traditional art and western painting. In my painting, I reinterpreted the aesthetics of traditional Korean art in a modern way, and expressed the natural scenery of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where I live.”

---

Sam Sanghoon Lee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2009. Lee received his BFA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in 2008, and his Industrial Design degree from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from Pasadena, CA in 2014. Lee has exhibited his artworks through SNU Alumni Group Exhibition, S Gallery, Here & Now Group Exhibition, and Gallery Western. He is currently a freelance industrial designer and an art educator. [www.samleeaccd.wixsite.com/artist](http://www.samleeaccd.wixsite.com/artist)



## Ji Oh



American ID 3, 2021  
Archival Pigment Print  
24 x 30 inches

---

“In capturing myself immersed in my own fabric piece and in finding dynamic energy and depth from tangled brown paper, I see myself dancing and moving through time and space.”

---

Ji Oh is a mixed media artist, educator, curator and art juror. Oh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80, and received her BFA fro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in 1987 and her MFA from th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in 1989. Oh has exhibited her artwork throughout Southern California and internationally in Australia, Japan, Korea, Mexico, and Singapore. She currently teaches art at her private studio and gives lectures on art history.

[www.artbyji.com](http://www.artbyji.com)





## Da Aie Park



Doc (Mulberry) Folds 1, 2021  
Acrylic, India Ink on Hanji  
57 x 59 inches

---

As an abstract contemporary artist, Da Aie Park expresses her Arirang through Korean traditional materials and colors. In these paintings, she folds Umber layers in remembrance of Korea.

---

Da Aie Park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her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1978, she has held 11 solo exhibitions and been part of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Germany, and Italy. She is currently a resident artist at the Angels Gate Cultural Center in San Pedro, CA.

[www.daaiepark.art](http://www.daaiepark.art)



## Hyesook Park



East.wind.mountain, 2021  
Oil on canvas  
84 x 72 inches

---

Through brush strokes, I express mountains.

---

Hyesook Park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while atten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painting major. She graduated from UCLA and is currently painting in the Love Art Studio in San Bernardino, CA. She has had 15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shows in Seoul, Beijing, Paris, Berlin, New York, and Los Angeles.



---

Michelle Seo



Mackerel Sky, 2021  
Watercolor on 5 layered Hanji  
84 x 96 inches

---

Herd mentality I the same scales riding water and light I do I like this?  
My oar laughs and cries I salt breeze I hard waves like a pattern I the dried up rock of mother.

---

Michelle Seo is a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living and working in Los Angeles, CA. Seo graduated fro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in 2015 with an emphasis in Painting and Drawing. She has exhibited in Chicago and Los Angeles and is currently a resident artist at Angels Gate Cultural Center in San Pedro, CA.



## Kayla Tange



dis-in-te-gra-tion, 2021  
Wood, plastic, acrylic paint, unfired clay, video  
30 x 16.5 x 48.5 Inches

---

Through poetry, video, sculpture, and more directly with performance and cultural production, a large portion of my work addresses structures of spectatorship while redefining ancestral trauma through public and private ritu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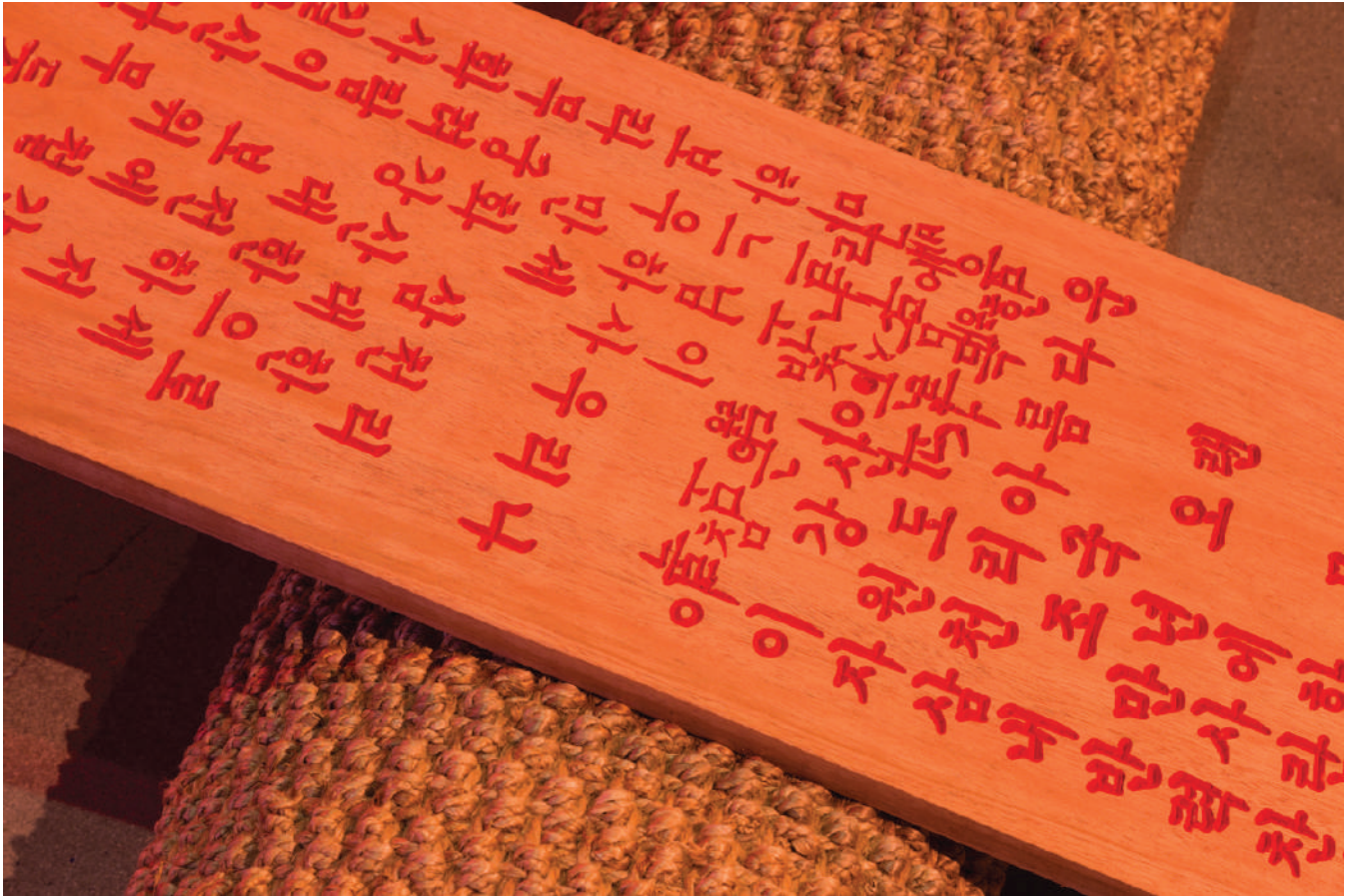
Kayla Tang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and was adopted at age six months, by a Japanese American family residing in Lemoore, California. Her passions are found in performance, poetry, photography and facilitating a uniqu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audience leading her to create Intentions at Torrance Art Museum in September 2019, Defining Boundaries performed at Human Resources in December 2018 and Dear Mother, a visual letter to her birth-mother directed by Matthew Kaundart, produced by Luka Fisher and herself.

[www.kaylatange.com](http://www.kaylatange.com)



---

Hannah Kim Vatamli



Aegukka Anthem, 2018  
Wood, paint, jute mat  
98 x 48 inches

---

The work recalls the traditional game of Neolttwigi, which predates divided Korea, although its current use in the two sites has diverged. It originated as a game played by women of the noble class, who were not allowed to freely leave their homes. The coordinated act of jumping together was a cooperative endeavor that simultaneously allowed them to see over the walls of their enclosures—and also to be seen.

---

Hannah Kim Varamini (b. Washington, DC, 1985) received her BFA from Cornell University, and MFA from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She is a former Fulbright Scholar, and has presented work in exhibitions in the United States, Italy, Austria, and Namibia. She was recently in residence at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DTLA through the artist-run project Love's Remedies.

[www.hannahvaramini.com](http://www.hannahvaramini.com)

# LA Artcore

## DIASPORA-ARIRANG 2

A TWO PART EXHIBITION

SEPTEMBER 4 - SEPTEMBER 25, 2021

Opening Reception: Saturday, September 4th, 1 pm - 4 pm

Nanta and Fan Dance Performance by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 Featured Artists

Sheri Ki Sun Burnham   Yun J. Choi   Koojah Kim   Sunny H. Kim  
Won Sil Kim   Young Ku Park   Caroline Yoo

Curated by Yun Choi and Wonsil Kim  
Advised by So Hyun Chang (Art Critic)

---

Sheriann Ki Sun Burnham



Origin Story #1, 2021  
Digital ink jet prints and acrylic on paper over canvas  
41 x 41 inch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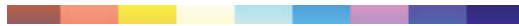
“The works presented in ‘Diaspora Arirang’ are autobiographical montages reflecting my background as a Korean adoptee. The works synthesize my conscious and unconscious connections to Korea, my Korean heritage, and of being apart from, yet a part of the wider Korean community.”

---

Sheriann Ki Sun Burnham came to the U.S. in 1961. She received a B.A. in Studio Art fro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in 1982. Her artwork has been exhibited across Southern California and the U.S and internationally in Germany, France, Spain, Portugal, New Zealand, China, and South Korea. She is also a freelance designer working in graphics and creative production.

<http://studiokisun.com>





## Yun j Choi



CL Pillow rests, 2021  
Mixed media  
40 x 30 inches with 3D Pillow

---

“On your long journey as a Diaspora, you will always need a place to rest, whether it be for a day or decade. In my work for Diaspora Arirang, I explore my belief that where your pillow rests is the place you belong.”

---

Yun J Choi was born in Busan, S.Korea in 1968. She moved to Seoul to receive her BFA in Fine Art Education from Kyunghee University 1991, and immigrated to the U.S that same year. Choi has had 6 solo exhibitions as well as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 Korea, France, Spain, Italy, and Japan. She has curated several exhibitions, worked on numerous interior design projects, and taught art at her own studio since 1994.

[www.yunjchoiart.com](http://www.yunjchoiart.com)



## Koojah kim



Full Moon Fantasia, 2021  
Mixed media  
48 x 48 inches

---

"I left my homeland more than a half century ago to pursue my studies. In my new home, whoever I met, whatever I touched felt strange. My one constant comfort was the night sky. Full of twinkling stars and the hazy full moon, it was the same sky that inspired me in my homeland."

---

Koojah Kim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1968 after graduating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continued her art studies at the College of the Arts in Oakland, CA. Kim spent 30 years as a senior artist for American Greeting Corporation in the commercial art world, and the last 20 years focused solely on her art. She has had 3 solo shows and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both in California and abroad.

---

Sunny H Kim



No Title, 2021  
Acrylic on linen  
60 x 36 inches

---

“With a different color palette, I reinterpreted the emotions associated with the colors of the Korean Flag (Red, Blue, Black) to express the future of Korean ex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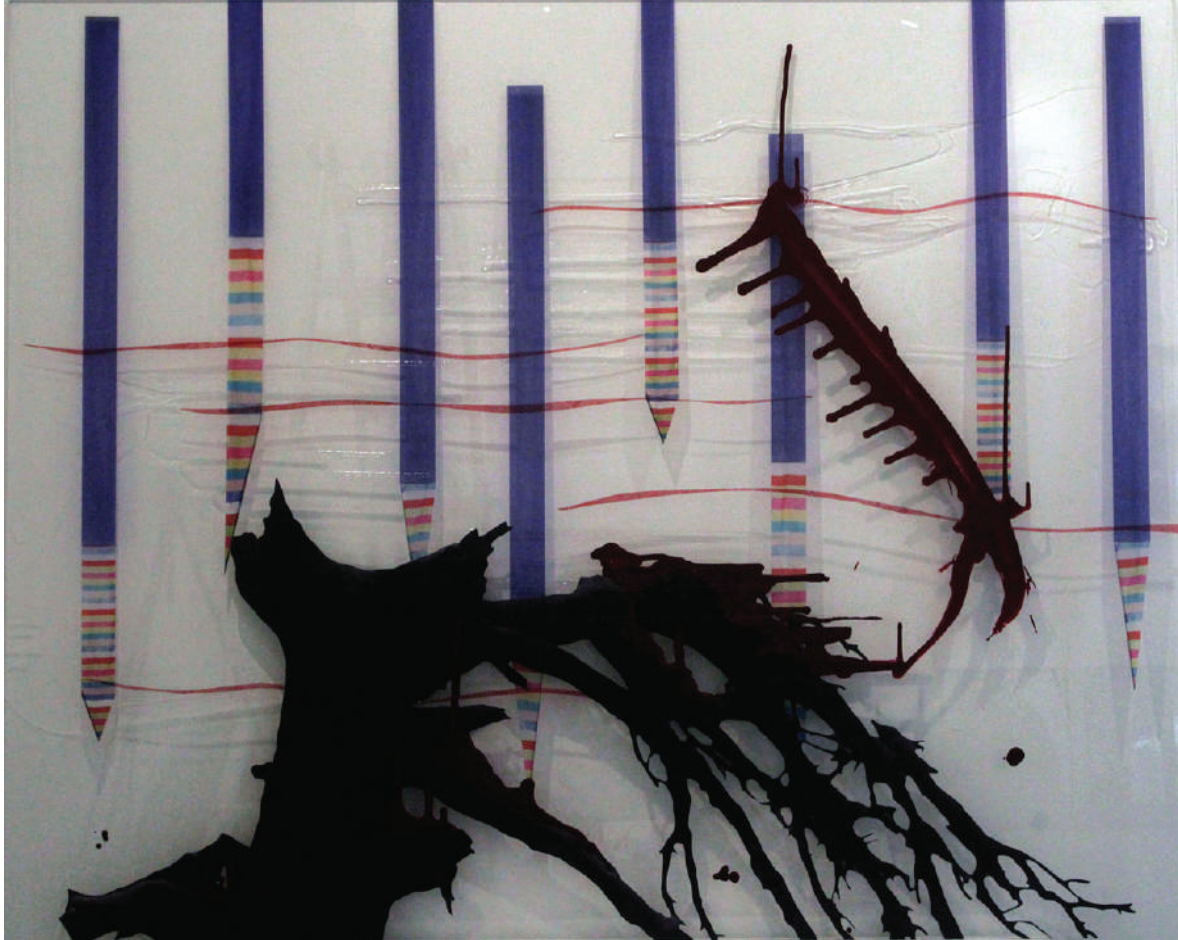
---

Sunny H. Kim received her BFA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6 and continued her studies at Parsons School of Design, New York, and 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ing (FIDM), Los Angeles. Kim has had 35 solo exhibitions, and participated in 76 group shows and 14 International Art Fair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Hong Kong, and France. Kim's paintings are in the permanent collection of The Korea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Korea. <https://sunnyhkimart.com>





## Won Sil Kim



Arirang becomes spears and sits on my dried shoulders, 2021

Photo collage on acrylic sheet

48 x 60 inches

---

“The Diaspora has permeated my life through my mother. Although she is Korean, she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As a stranger to her homeland, she moved to Korea after World War II. Her awkwardness to Korean and its culture affected my siblings and I growing up. When she immigrated to America, she again was displaced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She always questions, “Is this my destiny?”

---

Won Sil Kim received her MFA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in Seoul, Korea. S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Artists Association in 2004 and 2005 and a president of the Southern Californian Korean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in 2007 and 2009. Kim has had numerous solo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Currently, based in Southern California, she works as a board member at SoLA Contemporary.

[www.wonsilkim.com](http://www.wonsilkim.com)



## Young Ku Park



Reminiscence-Pinky Kimchi2, 2021  
Acrylic on Canvas  
36 x 24 inches

---

“My kimchi paintings symbolize my experiences with my mother. I reminisce of my childhood in these paintings.”

---

Young Ku Park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2003. Park graduated and got his bachelor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urthered his studies at CSUF and CSULB. Park has had many solo exhibitions, and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The current theme and focus of his abstract artwork is Kimchi.

[www.youngkupark.com](http://www.youngkupark.com)

---



## Caroline Yoo



WHAT\_AM\_I\_넌\_뭐니\_WHAT\_ARE\_YOU (2021)  
Short Film

---

WHAT\_AM\_I\_넌\_뭐니\_WHAT\_ARE\_YOU (2021) asks who and what defines what is Korean? Using fragmented 3D scans of traditional jade vases from my grandmother's house in the motherland, my computer screen playing K-dramas with English subtitles, and Korean kitchy objects found across the USA, WHAT\_AM\_I\_넌\_뭐니\_WHAT\_ARE\_YOU (2021) plays with the notion of custom and place, to probe how the term 'Korean' is transforming as capitalism finds a larger interest in cultural content and the diaspora continues to fluidly evolve.

---

Caroline Yoo is an artist performing history and archiving the present. Born to Korean immigrants in Lawrence, Kansas, Yoo's past informs her practice of engaging with personal ritual based on lived customs, re-enactment of history in both mythology and subjective nonfiction, as well as finding alternate modes of catharsis in a dominant hegemonic society. Yoo graduated from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with a BFA in Studio Art (2017) and was based in Los Angeles before enrolling in the MFA program at Carnegie Mellon School of Art (2023). She has performed and exhibited at the LA Art Show, Sacred Wounds, FEMMEBIT, Culturehub LA, CICA Museum, Landmark's Tivoli Theater, and more.



**SHATTO**  
GALLERY

3130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www.shattogallery.com](http://www.shattogallery.com)  
[shattogallery@gmail.com](mailto:shattogallery@gmail.com)  
213.277.1960

Parking entrance is on Shatto Place  
Gallery Hours | Tuesday - Saturday 11 AM - 5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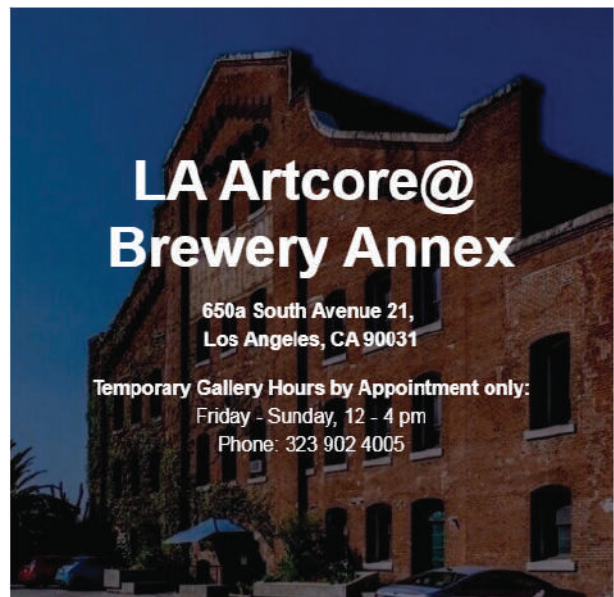


---

# LA Artcore



LA Artcore Union Center for the Arts



LA Artcore Brewery Annex

## LA Artcore Union Center for the Arts

120 Judge John Aiso St A, Los Angeles, CA 90012  
Temporary Gallery Hours by Appointment only:  
Friday - Sunday, 12-4 pm  
Phone : 213 - 617 - 3274

## LA Artcore Brewery Annex

650 S Avenue 21, Los Angeles, CA 90031  
Temporary Gallery Hours by Appointment only:  
Friday - Sunday, 12-4 pm  
Phone : 323 - 902 - 4005

---

**Diaspora Arirang Exhibition** Sponsored by:



Korean American Muse (KAM) is a nonprofit public benefit corporation 501(c)(3).

**Mission: To Advance and Support Korean Art and Culture**

**KAM provides a platform to learn, preserve, and share Korean Art and Culture.**

KAM is a proud annual sponsor and supporter of the Korean Art Department a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Korean American Muse

Jane Lee, President

Address: KAM POBOX 351, Buena Park, CA 90621

Website: [www.KoreanAmericanMuse.com](http://www.KoreanAmericanMuse.com)

Email: [korammuse@gmail.com](mailto:korammuse@gmail.com)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 **korammuse**



# The 8<sup>th</sup> Annual Korean Traditional Music & Arts Competition

Saturday, September 4, 2021


1pm - 6pm (View Online)


제 8 회 미주한국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 \$2000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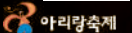
For more information  
[www.kukakusa.com](http://www.kukakusa.com)  
213-507-6758

주최  미주예술원 다루

주관  미주한국국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특별후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협찬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교육청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악방송  대사습놀이보존회 KOREAN  NET  삼일 한국예총  FKACO  미주한국우리춤보존회  
후원  Turbo air  한남제인  PAVA WORLD  아리랑축제  고세영 THE SOURCE



---

# 유스 한국 문화클럽

## Yoo's Korean Culture Club

###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연구소**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818) 456-8022

[www.hizakordance.com](http://www.hizakordance.com)